금융의 우버화(Uberization)

- 우버화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우버택시에서 나온 용어로 특정 중개자 없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 거래비용을 낮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
- 월스트리트저널(2015.11.6)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도 중개자 없이 자동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P2P대출, 기업대출, 자산관리, 주식 및 채권 투자 등의 분야에서 우버화가 진행

1) P2P대출 시장의 성장

- 기존 대형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도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
- Lending Club, Prosper 등 다양한 스타트업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SoFi와 같이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자금 대출, 주택담보대출 차환 등으로 특화
- P2P대출 시장의 규모는 2014년 70억달러에 불과하나 회계법인 PwC에서는 2025년 1,50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2)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로 중소기업 대출 증가

-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소액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용등급은 낮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미국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은 보수적인 심사로 2008년 7,000억달러에서 현재 6,000억달러 이하로 감소
- SeedInvest, Fundable 등의 스타트업 회사는 사업 아이디어 공개, 개인 투자자 모집, 주식 배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어 기존의 폐쇄적인 투자업계에 변화가 예상

3) 로보 어드바이저*를 이용한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

- Betterment, Wealthfront, Personal Capital 등과 같은 스타트업 회사뿐만 아니라 Vanguard, Schwab과 같은 대형 자산관리회사도 로보 어드바이저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에게 기존 운용수수료의 1/10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
- 온라인 자산관리 규모는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미국 자산관리 시장(약 20조달러, 2015.3월)에 비해 소규모이나 향후 성장 가능성 높음

* 로보 어드바이저(Robo Advisor): 투자 성향, 연간소득, 나이, 은퇴 시기 등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의 자산운용을 자문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

4) 고객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식을 구매

- Loyal3, EquityZen 등 실리콘밸리의 일부 스타트업 회사는 고객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간단히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

□ 우버화가 금융회사에게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자동화하기 쉬운 금융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바 금융회사는 자동화가 어려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

담당: 김진완 수석연구위원

강대일 책임연구원

Tel. 051) 620-3184